

기획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 중심부 12km를 흐르는 수로.



프랑스 리옹의 론(Rhone) 강 전경. 돌을 주재료로 해 아치형으로 만든 다리, 5층 규모의 중세·근대 건축물, 둔치에서 도시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보도 위 거리 카페 등이 눈에 띈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5> 유럽편 '도시와 하천'

삭막한 도시에 여유·낭만 흐르게 하는 '활력水'

유명 도시에는 크든 작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강이 있다. 도시를 흐르는 강은 도시 경관과 도시 생태의 핵심 요소이면서 그 존재만으로 도시민들에게는 자연의 안락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강 주변에는 예부터 도시민들의 다양한 삶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도시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광주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광주천 역시 광주의 도시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구곡양장의 모습이었던 광주천에는 큰 장과 작은 장이 있었고, 드넓은 둔지에서 가축을 키우고 작물을 재배했으며, 공장과 운동장이 자리하기도 했다. 이후 일제가 수해 예방 차원에서 하천을 직선화해 그 과정에서 남은 주변 부지를 매각하면서 광주천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후 도시 개발과정에서 '하수구'로 전락했던 광주천의 악취가 사라진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의 일로, 이후 산책로,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이 하나 둘 생겨나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이 됐다.

그러나 광주천의 지천인 동계천, 서방천 등의 복개로 인해 수량이 적어졌다 여전히 일부 하수가 유입되면서 영산강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

강변엔 아트마켓·시장...일상서 문화 향유
강과 조화 이룬 건축물은 도시 경관 만들고
자연과 사람 뒤섞여 편안한 휴식처로 각광

으며, 지나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인공미가 강조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 도시의 하천은 '자연'과 '사람'이 뒤섞여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도시 속 하천으로써 갖추어야 할 다리, 쉼터, 산책로 등 편의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고 주변 건축물은 하천의 경치와 어울리는 범위 내에서 지어졌다.

론(Rhone) 강과 손(Saone) 강의 합류점에 위치한 프랑스 리옹의 도시구성은 철저히 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손 강의 안쪽은 중세 및 근대 건축물과 골목길이 주축인 구도심, 바깥쪽은 신식 건물과

대교가 주축인 신도심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강변을 따라 최대 5층 규모의 중세 및 근대 건축물들이 줄지어 있고, 다리는 돌이나 케이블 등 단순한 디자인으로 그 기능적인 측면에 충실했다. 둔치는 도심 내 구간에 대해서만 시멘트를 깔고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지만 밤낮 구분없이 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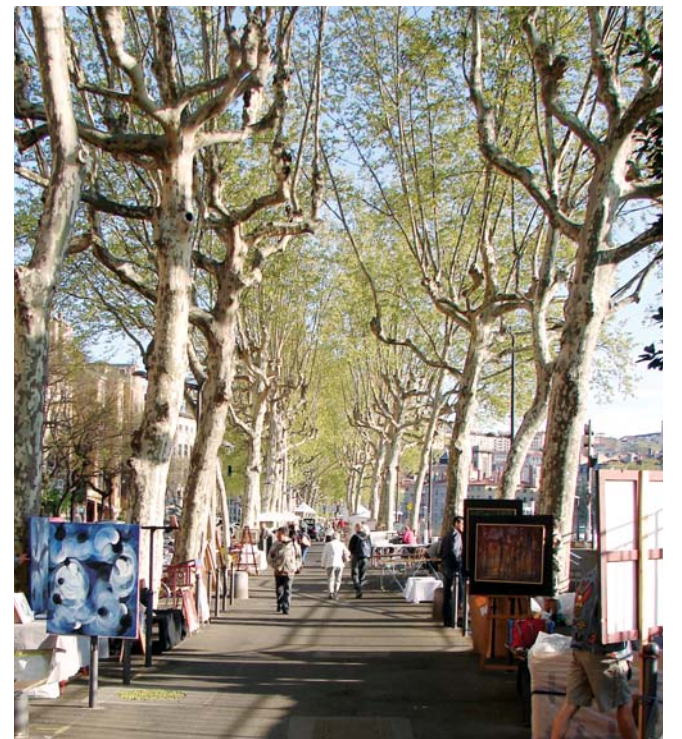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오전 손 강 양쪽에 있는 보도에서는 아트마켓과 시장이 열린다. 그림, 조각품에서 로봇까지 거래되는 아트마켓은 이 도시의 관광상품이며, 시장은 도시민들이 싼 가격에 야채, 과일, 화훼, 생선, 축산물 등을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다. 아트마켓에서 자신의 조각품을 팔던 한 예술인은 사

을 찍는 취재진에게 모조품이 유통될 수 있다며 직접 촬영을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할 만큼 자신의 작품에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알자스 대운하에는 사람들의 통행은 없었지만 유람선이 운행돼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암 마인강은 도심 내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둔지에 큰 가로수와 녹지 사이에 아스팔트 산책길이 나 있고 요소요소에 벤치가 있었다. 오전 이른 시간에는 강변을 따라 걸거나 뛰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강과 조화를 이뤘다.

강이 없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는 수로가 있다. 드라이 잠이라는 하천에서 시작돼 시내를 흐르는 폭 30~40cm의 작은 수로는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총연장이 12km에 이른다. 당시 목재건물들의 화재에 대비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설치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어른들의 쉼터, 아이들의 놀이장소 등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도 이 수로를 설명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글·사진=유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프랑스 리옹의 손(Saone) 강 주변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에만 열리는 아트마켓.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



심의번호 2112073